

투데이 칼럼

북한 최선희 역할과 위상

최근 북한 외교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 최선희 외무상이다.

얼마 전 푸틴 대통령이 최선희 외무상을 직접 환대하면서 그녀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일각에선 북한 정권의 최선희 기용이 향후 대미 협상을 열두에 둔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최선희 여성 외무상은 김정일 시대 가장 주목받는 엘리트로 손꼽힌다.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대표단을 직접 환대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최선희 외무상 역시 앞서 열린 외무회담에서 북러 친선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1월 북한 외무상 보좌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최선희 외무상이 전면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이끌어냈다. 북한 매체 역시 최 외무상과 푸틴 대통령 면담을 부각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이 최선희 외무상 임명 후에 보여지는 구조적 변화라는 분석이다. 1964년생인 그녀는 북한의 내각 총리를 지낸 최영림의 수양딸이다. 이런 출신 성분 덕분에 평양 외



정복규 논설위원

국어 대학 졸업 후 중국·오스트리아 등에서 유학했다. 이후 북한 외무성 통역으로 활동하며 경력을 쌓았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열린 6자회담과 2009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당시에도 통역역을 도맡았다. 이후 2010년엔 북미 북극장장으로 임명됐다.

이듬해 인도네시아 발라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에서 북측 차석 대표로 참석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북한에 몇 안 되는 여성 외교관이지만 남성들에 밀리지 않는 카리스마를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엔 그야말로 승승가도를 달렸다. 2016년 6월, 무수단 시험 발사 성공을 알린 북한은 곧 미군 기지를 폭파한 것이라며 밝히면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다. 이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 인

물이 바로 최선희다. 이후 북미 국장 자리를 꿰찬 최선희는 2017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비확산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18년, 우리의 차관적인 외무성 부상으로 승진한 이후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과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까지 관철하며 대미 실세 라인업을 보여줬다.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화제가 됐다. 2019년, 외무성 제1 부상에 임명된 이후 그녀의 발언은 더욱 거침이 없어졌다.

2019년, 러시아에서 외무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선 미국에 남은 것은 배신감 밖에 없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2년 전, 최선희는 북한 외무성의 최고 자리

인 외무상에 올랐다.

지난해엔 북한이 전술핵 잠수함이라고 주장하는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에서 산페인 병을 선체에 부딪쳐 깨뜨리는 안전 항해 의식을 맡았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외교 복귀 무대였던 러시아 방문 일정 대부분을 따라다니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으로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을 전면에 내세워 북미관계의 강대 강 대결 구도를 이어갈 거란 분석이다. 북한이 대남기구의 정리·개편 작업에 돌입하며 대남 긴장 수위를 끌어올릴 뿐, 미국과는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는 평도 있다.

벼랑 끝 대처 이후, 대화와 협상을 열두에 두고 최선희 외무상을 기용했다는 것이다. 최선희는 북한 외무성에서 통역 일부터 시작해 최고 자리까지 올랐다. 요즘 북러 간 협력 움직임이 긴밀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그녀의 역할이 대결에 치우칠지, 아니면 대화로 전 환될지 여부다.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사설

실리콘밸리 감원 사태

글로벌 기술기업의 감원이 심각하다. 지난 한 해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은 26만여 명이다. 아마존과 메타에선 2만 명이 넘는 인력이 직장을 잃었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에서도 1만 명이상이 떠났다.

올해 벌써 93개 기업이 2514,000여 명을 내보냈다. 지난해까지 몰아친 해고는 '과도한 몸집 불리기'의 후유증 해소 차원이었다. 하지만 2022년과 지난해에 걸쳐 이뤄진 대규모 해고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체 없는 성장세를 기록했던 기업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2020년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기반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부분의 테크업체들은 매출이 급성장하고 주가가 수직상승했다. 2019년 7만여 명이었던 아마존의 전 세계 직원 수는 2021년 말 160만여 명까지 불었다.

메타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그전까지의 전체 직원 수와 비슷한 인원 명을 새로 채용했다. 최근 기술기업들 상황은 지난 2년보다 상당히 개선됐다. 주가만 보더라도 대부분 빅테크들이 팬데믹 당시 최고 점을 이미 넘어섰거나 거의 근접한 상태다.

그럼에도 다시 해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건 과거의 경험에 업계에 학습효과를 남겼기 때문이다. 전체 없이 큰 규모의 해고를 단행했는데

도 큰 타격이 없었다는 데서 많은 경영진이 해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했다.

대부분 기업들이 해고 계획 발표 이후 주가 상승을 경험했다. 최근의 해고가 인공지능(AI) 열풍과 직결돼 있다는 것 역시 과거와는 다르다. 실제로 AI를 해고의 사유로 꼽는 테크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만 구글, SAP, 듀오링고 등이 해고를 발표했다. AI 같은 우선순위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다른 부문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 환경이 개선됐는데도 채용이 늘지는커녕 해고만 잇따르고 있다. 빅테크 출신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도 옛말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미국 내 기술 분야 실업률은 4.3%로, 전체 평균(3.8%)을 웃돌았다.

다행히 해고 칼날을 피한 이들도 상황이 나빠진 건 마찬가지다. 회사가 비용 절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지 혜택을 대거 줄이고, 출장 등 각종 지출을 더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신의 직장'으로도 불렸던 구글, 메타 등은 구내식당 메뉴 간소화, 사내 카페 운영 시간 단축, 마사지 서비스 축소, 무료 미용 및 세탁 서비스 폐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연봉은 많고 스트레스는 적다'던 실리콘밸리가 달라지고 있다.

작사가 양인자의 수필집

작사가 양인자씨(70)의 수필집 '그 겨울의 찻집'이 최근 나왔다. 이 책에는 대중음악사의 명곡들이 탄생을 결정적 순간들이 생생하게 담겼다.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은 양인자가 작사했고, 김희갑이 작곡했다.

1985년 경기 벽재에 있던 지구레코더사 녹음실에서 양인자는 조용필이 '그 겨울의 찻집'을 부를 때 화가 나 녹음실을 나가 버렸다. "아름다운 재~"가 아니라 "아름다운 죄!" 라고 화를 낸 것이다.

조용필의 '재' 발음이 거슬린 양인자는 계속 발음 수정을 요구했다. 결국 조용필은 힘들게 녹음을 마쳤다. 해운이 '열정' 조용필 '킬리만자로의 표범' 김주리 '립스틱 질게 바르고' 김국환 '타타타' 등은 모두 양인자의 작품이다.

김주리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1989)는 처음 '정말 좋겠네'로 제목과 노랫말이 바뀌어 나왔다. 여성 입장만 주장하는 편파적이란

이유로 방송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는 부부이 기 전 양인자와 작곡가 김희갑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노래다. 양인자가 노랫말을 쓰고 김희갑이 작곡한 약보는 책상 서랍에 깊이 숨어 있었다.

어느 날 양인자가 "이선희에게 한 번만 불러보게 하자"고 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김희갑은 양인자가 자신한테 하는 얘기 같아 속스럽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둘은 결국 1987년 결혼했다. 양인자는 부산여중 3학년 때 쓴 소설 '돌아온 미소'로 국어 선생님 추천을 받아 고 때인 1961년 책을 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여학생' 잡지사에서 일했다. 드라마 작가 김수현은 회사의 무서운 선택이었다. 양인자씨는 지금도 40여 년째 글을 쓰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오디세우스' 달 착륙에 환호하는 IM 엔지니어들



지난 22일(현지시각) 미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인튜이티브 머신스(IM) 관제실에서 메인 컴퓨터 엔지니어 덴 해리슨이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가 달에 착륙한 후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다. 오디세우스의 달 착륙은 1972년 아폴로 17호 임무 이후 52년 만이며 민간 기업으로 처음이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지난 19일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케네버럴 우주 기지에서 스페이스 팰컨에 실려 발사됐다.

혼연기 뿌리며 시위하는 그리스 양봉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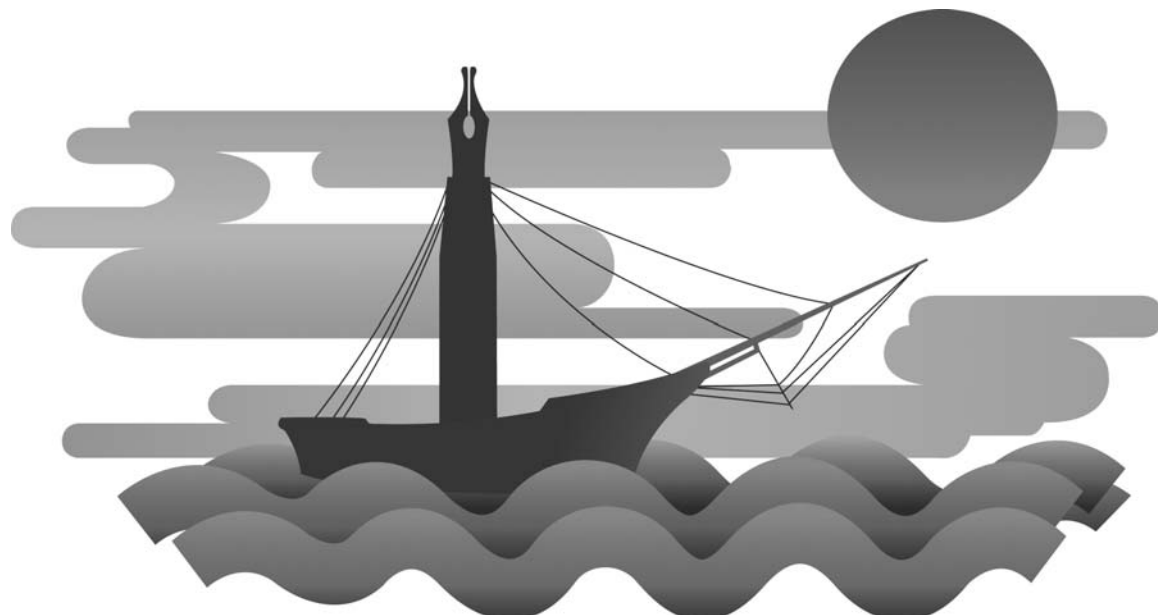
지난 22일(현지시각) 그리스 아테네 의회 앞에서 시위 중인 한 양봉업자가 검은 깃발을 들고 혼연기를 뿌리고 있다. 그리스 전역에서 산통과 홍수로 피해를 본 양봉업자들이 즉각적인 산업 보호 조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세금 인하, 수분 보조금 지급, 불법 수입 꿀 추적 조치 등을 요구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